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떠오른다. 존 포드의 목가적인 서부극 '황야의 결투'에서 흘러나오던 예수 어린 그 노래 '클레멘타인', 그런데 끔찍한 짓을 하는 인물의 휘파람으로 이 노래가 들려오면 가슴이 뒤틀려 내린다. 권력이 호출하는 애국이란 명분으로,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며 누리고자 하는 평안함을 누리려 부는 휘파람일까? 간혹 끼어드는 아일랜드 민요에서 온 노래 'Johnny I hardly knew ye, 조니 난 당신을 거의 알아 못해요'도 터질 것 같은 긴장감에 틈새를 만들어 귀를 간지럽힌다.

'남영동 1985' 거기에선 무슨 일이?

참혹한 극치에서 나오는 노래, 기막힌 상처와 고통을 통과하는 치유로서 예술의 힘일까? 이 대목에서 우아한 화백 속에 예측불허의 전복으로 종교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한 '그늘린 사랑'이 떠오른다. 감옥에서 성교문을 받는 여자, 그녀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노래하는 여자'로 불린다. 밀실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일상은 험겁다. 때론 라디오 프로 야구중계를 들으며, 어느 팀이 이길 건지 대화한다. 과도한 근무에 처어 연애할 여유조차 없는 청년

은 여자친구 문제로 괴로워한다. 심지어 갑종태에게 상담을 받을 정도로 우수는 상황도 벌어진다. 직장이기에 참혹한 짓에 말려들었지만, 그런 직장으로부터 탈주하지 못하는 시대의 우울을 앓는 이들이 늘 존재할 것만 같아 웃어넘기기 힘들다. 최근 들은 민간인 사찰에서 고문은 없었지만, 남영동의 그림자가 느껴지기에 그런 것일까? 그때 그 시절을 여전히 앓고 있는 이들의 숨결이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영화를 보노라만 몸과 맘 모두 저러온다.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다. 인류가 산업화로 파괴한 지구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의 제목처럼 영화란 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응시하게 만드는 매체이다. 그것은 진실의 힘을 포기하지 않는 삶과 예술의 관계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영화의 존재 이유를 정지영 감독이 남영동 밀실에서 보여준다. *일일생애대 역력을 맡은 이경영의 연기력이 불편한 불거리를 넘어 만개한다. 온 몸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박원상의 연기 투혼도 감동적이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초법적 공사 강행한 한전, 공기업 맞는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을 우려해 심야에 개인 주택에 몰래 침입,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 정도를 지키지 않은 채 '들고양이 식' 공사를 했더니 한삼하기 짝이 없다. 나주시 다시민 가운리에 사는 김장명 씨에 따르면 한전과 시공사 직원 3~4명이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자신의 주택에 들어와 고압선로 연결 준비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에 한전 측은 '낮에 공사를 하면 김씨가 반발할 것 같아 위에 보고를 하고 심야 공사를 강행했다'며 시공사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변명일 뿐이며, 자책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공사가 가담한 일인가, 이 공사는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건설하고 있는 '나주~광산 광동간 고압송전선로 사업'으로, 그동안 김씨의 반대에 부딪혀 집 양쪽에 철पाल

'보문고 사태' 학생피해 줄일 대책 세워야

2013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광주 보문고가 26일 광주시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폐교를 신청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을 포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 설립 당시 학교 측에 약속한 사안들을 파기한 게 주된 요인이다. 보문고는 26일 "내년도 신입생 지원이 20명선에 그쳐 모집을 중단했다"며 "학생 수업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일반학교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문고의 신입생 모집 실체는 지난 8월 학교 측과 시교육청이 교원특례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부터 예견됐다. 보문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 지정 당시 시교육청으로부터 과외교사 16명을 공립특채로 받아주고 기숙사 건립비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장학금 교육감 취임 이후 전일 교육감의 약속을 반박하자 학교 측은 지난 8월 자사고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문제는 이번 보문고 사태의 최대 피

NGO 칼럼

창립 90주년 광주YWCA의 다짐



김신희

광주YWCA가 올해 창립 90주년을 맞아 울 한해 북한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을 위한 캠페인과 시민견학대회, 기념음악회, 기념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YWCA는 설립 이래 어려운 고비마다 여인들의 용기와 사랑으로 평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왔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에 의해 가능했었다고 본다. 1922년 일제 강점기의 암흑한 시대 속에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창설자(김필래, 김활란, 유각경) 중의 한 사람인 김필래는 아직 YWCA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제의 압박 아래 있던 민족의 암흑기인 당시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

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 후 역사의 절고를 짚어주고 민족의 수난기를 함께하면서 구국 및 독립운동을 이어지게 하는 밑거름 되었다. 광주YWCA가 창립되던 당시에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계몽과 사회운동의 성격으로 활동뿐 아니라 모든 단체들의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일부는 해외로 옮겨가고 일부는 국내에서 사회 문화적 행동으로 대처시켜 강연회나 야간학교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광주YWCA는 첫 사업으로 야학반을 열어 무지와 구습에 젖은 부녀자들을 깨워주는 일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광주YWCA 역시 강압에 의해 기관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해방의 감격과 함께 광주YWCA재건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늘어나, 1952년 불우아동복지사업으로 성빈(聖貧)여사를 설립하였다. 이어 성빈여사생들과 영세민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설학원인 호남여숙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 후 한글 야학반인 별빛학원과 윤락여성들의 직업훈련시설인 계명여사를 설립하였고, 농촌 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도 쉬지 않았다. 1966년 3월 25일 청소년을 한 가정법률 상담소는 무지와 가난으로 법적 침해를 받고도 이를 호소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어 Y신협, 소비자상담실 운영, 장운동복지관 운영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개해 왔다.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요 활동지였던 대의동 Y회관은 계엄군의 무차별 공격을 위한 어린이 시범택야소(현 어린이집)를 시작하였고, 일하는 여성의 집(현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어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련

터와 가정폭력상담소(현 가정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현 솔밭타운)운영, 성빈여사 그룹홈 운영,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명살림터(친환경 유기농 매장)를 운영하고 있다. 90년전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여성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심었던 씨앗 하나가 90줄의 나이테를 가진 큰 나무로 자랐다. 광주YWCA의 90년 동안 현장에 있었던 많은 자원지도자와 실무지도자들의 열정과 희생, 땅과 눈물 어린 헌신과 봉사가 있었으며, 특히 90년 속에 고(故) 조아라 명예회장의 여성과 민주화운동 및 여성복지향상을 통한 사람·정의·평화·봉사정신은 앞으로도 계승 선양해야 할 것이다. 창립 90주년을 맞은 광주YWCA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상을 살리는 생명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정의와 평화의 세상 건설을 위해 700여 회원들과 함께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한다. <광주YWCA 사무총장>

기고

매를 못 때린다고 교육을 포기해서야



전상훈

언말이 점점 가까워져서일까?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학교에 지각하거나, 복장착용과 언행 면에서 관용의 한계를 넘어선 아이들이 부적 눈에 띄게 늘어나다 싶어 학생부장과 함께 직접 교문 앞 생활지도도 며칠째 해오고 있다. 대다수 학생이 학교의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다운 단정한 교복을 입고 제시간에 학교에 나오는 등 학생으로서의 바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잠자리에서나 입을 법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운동화도 아닌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시간에 등교하고 있었다. 효율적 지도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녀들의 품행 상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학교의 규칙과 규율을 어긴 학생들을 따로 불러 몇 차례 설득과 훈계를 거듭했다니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다. 거친 아이들 다루느라 생활지도에 지친 어떤 선생님들은 말한다. 말 안 듣는 아이들, 때 하나 들 수 없고 사건 터지면 민사형사상 책임이나 덤터기로 져야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고부터 아이들 머리통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잘못된 세태와 현실을 한탄이나 하며 냉소적

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전 같으면 예를 중시하는 전통과 사회 풍조 속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 되고 설명 이런저런 이유로 선생님들이 매를 좀 때렸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도 고소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처벌 없는 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해 돌이 출몰하는 요즘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신의 교육적 행위가 일부 피교육자나 학부모의 저항을 초래한다 하여 뻔히 눈앞에 보이는 제지의 잘못과

일탈을 수수방관하는 것을 책임 있는 교육자의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사의 교육권이 중요하다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이와 맞물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찌하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양립 불가능한 상호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라는 선순환적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변하고 있는가. 매를 못 때린다고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매를 안 때리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교육지도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을 따르고 스스로의 인권과 인격의 높이를 더해준다는 실천적 자세를 이룰 수 있도록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만 즐거운 학교 신나는 교실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첨단중학교장>

인터넷·휴대전화 통한 모욕행위 엄단해야 한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욕설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 혹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연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모욕감은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더욱 많이 느끼고, 그 정신적 충격도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모욕감은 직접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언어 등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모욕을 주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내가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정작 그걸 당하는 입장에 서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런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적잖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책에서 보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죄로 본다 고 돼있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그렇게 당한 모욕감이 순식간에 퍼지니 그 피해가 과거에 비해 극심해져 그 회복 또한 쉽지 않다. 그러므로 모욕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모욕은 상식 문제다. 처벌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無等鼓

큰 선거관이 벌어지면 으레 '하방령'(下放令)이 내려진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선거 캠프 주요 인사들에게 표발현장에서 바로 뛰라는 종용이다. 본디 하방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나왔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10여년이 흐르는 사이 중앙 간부들의 관료화가 서서히 나타났다. 노동자, 농민을 위해 신중국을 건

도 지난 25일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에 가서 바로 뛰어주길 부탁한다"며 캠프 간부들이 현장에서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하방은 일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파당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현장으로 내려보냈다. 최근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뽑힌 시진핑(習近平)은 대표적인 하방 성공 케이스다. 그는 부총리를 지낸 아버지의 숙청으로, 산시(陝西)성 박문가에서 7년을 지내야 했다. 짧지않은 하방기간 동안 시진핑은 농민들과 부대끼는 한편,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editorial details.